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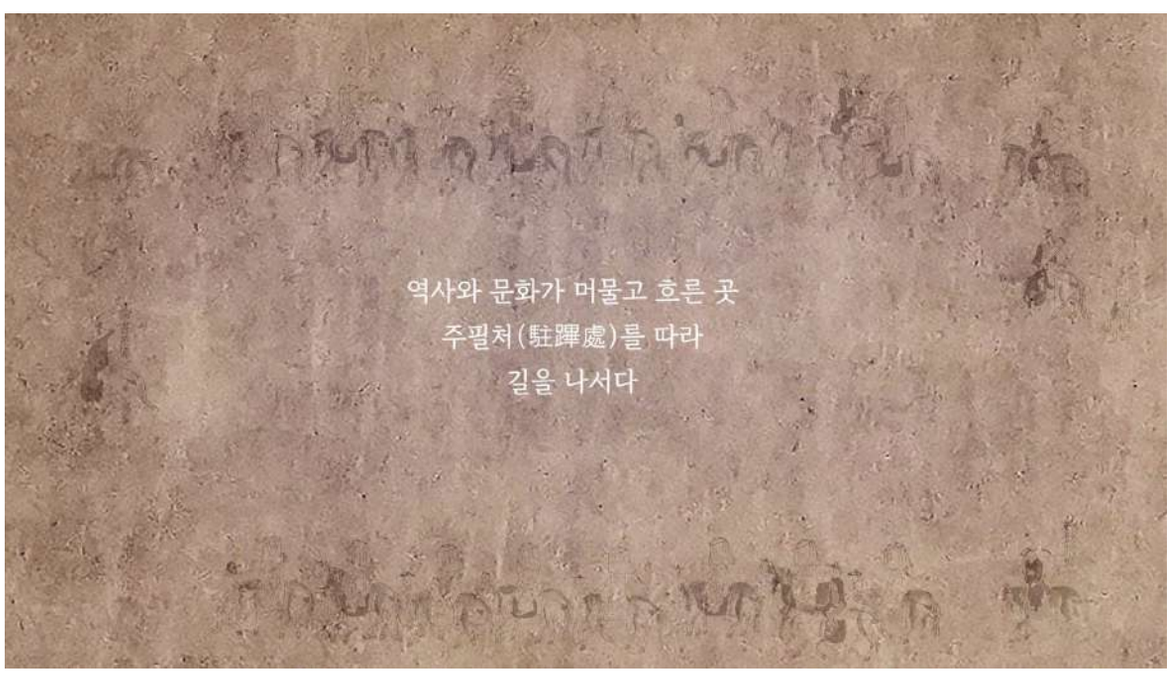
|

수원행차 '주필처'영상물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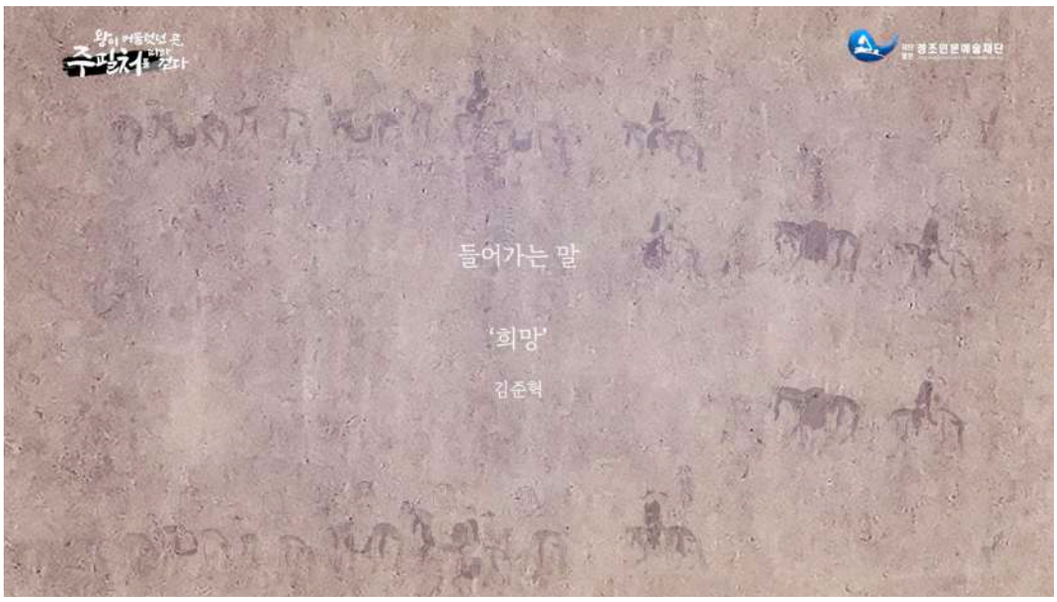
영상 타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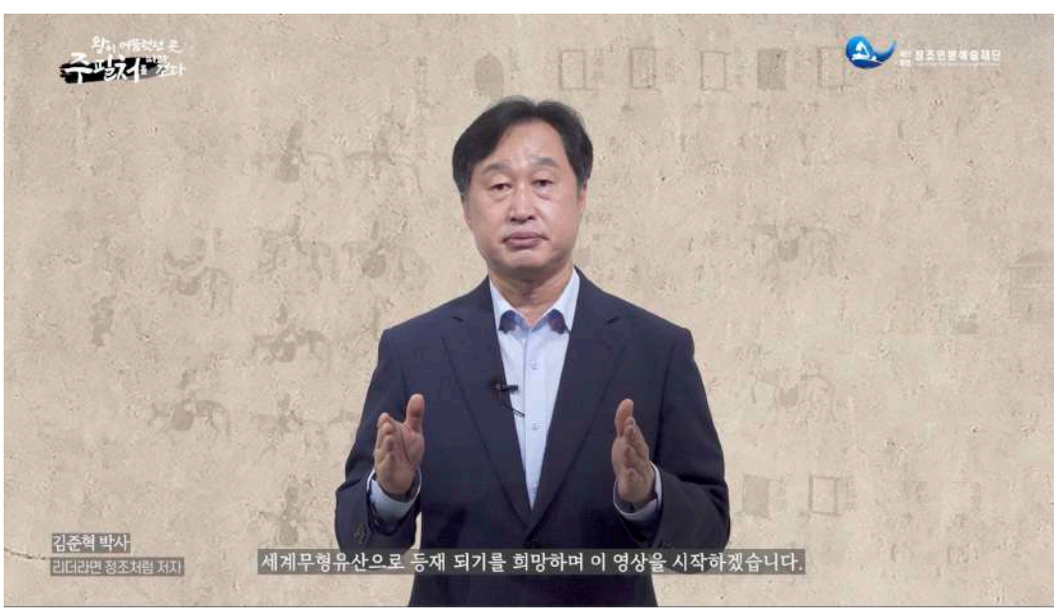
왕이 머물렀던 곳
주필처(駐蹕處)를 따라 걷다.



이 영상은 정조 재위 19년인 을묘년(1795년) 원행을 정리한
[원행을묘정리의궤 (園幸乙卯整理儀軌)]를 기반으로
행차시 정조가 잠시 멈추고 머무르거나 묵었던 주필처를 따라 기록으로 남긴다.

THEME 1 | 프롤로그 : 영상제작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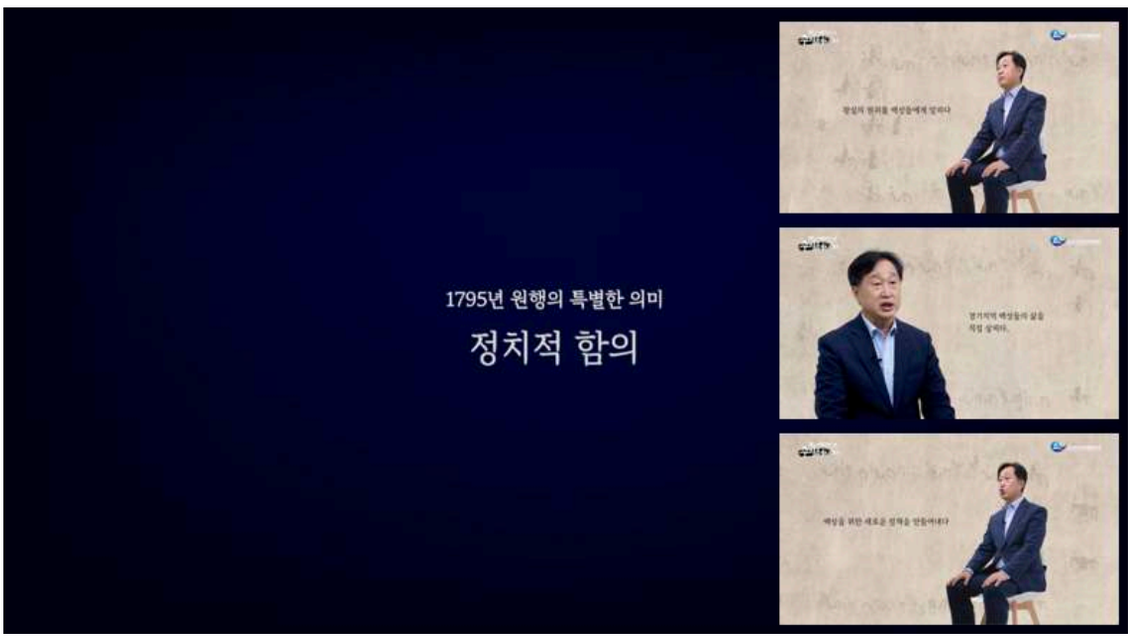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01:10~ 01:50	정조의 1795년 화성행차 이후 돌아가실때까지의 수원화성행차중 '창덕궁~한강~시흥행궁~지지대고개~화성행궁~현륭원의 원행길에 거쳤던 '주필처'에 대해 알아보고 기록하고 정리한 이 영상을 통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 되기를 희망한다.	김준혁 박사 '리더라면 정조처럼' 저자(이하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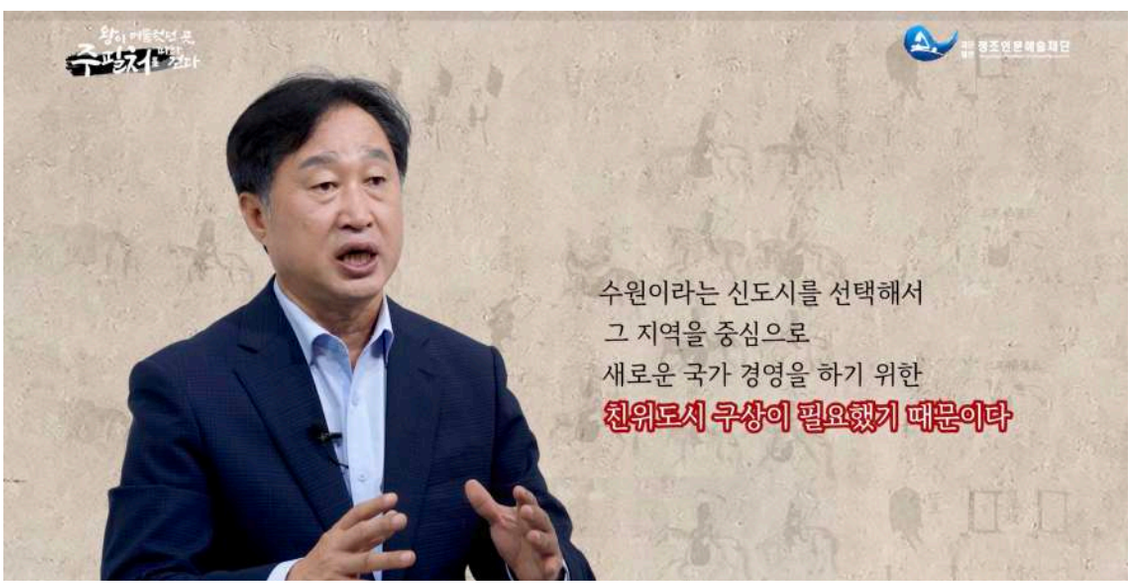
THEME 2 | 원행을묘정리의궤 : 의궤의 의미와 설명

Time	내 용	비 고
01:50 ~ 03:59	**원행을묘정리의궤** '원행을료정리의궤'에 대한 설명과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김세영 학예연구사 수원화성박물관 (이하생략)

THEME 3 | 1795년 원행의 특별한의미

1. 정치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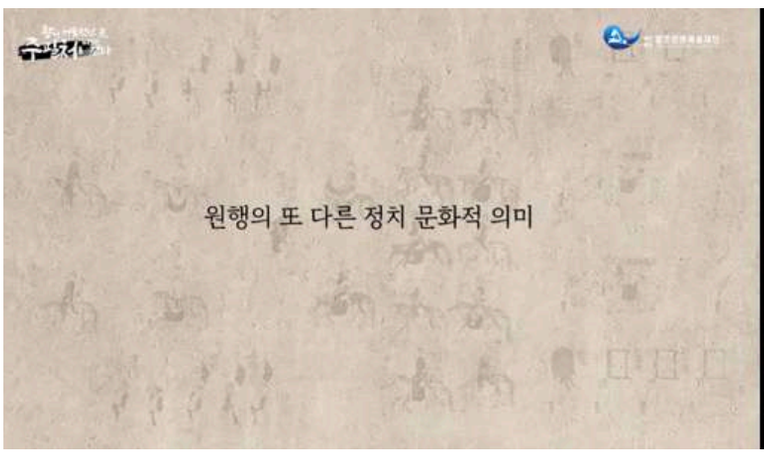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04:00 ~ 05:13	**1795년 원행의 특별한 의미** 첫번째. 정치적 함의를 담다 •정조의 원행은 왕실의 권위를 백성에게 알리고, •경기지역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원'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여 새로운 국가경영을 위한 '친위도시' 구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1795년 원행에 정치를 함의를 담았다.	김준혁 박사

THEME 3 | 1795년 원행의 특별한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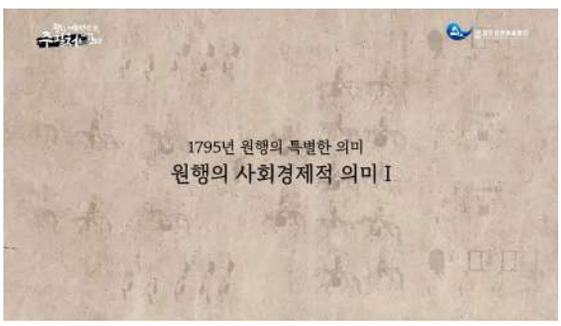
2. 원행의 또 다른 정치 문화적 의미



Time	내 용	비 고
05:14 ~ 06:17	**1795년 원행의 특별한 의미** 둘째. 원행의 또 다른 정치 문화적 의미 • 정조 이후의 조선왕조에 계속 이어지는 원행으로 사도세자의 직계로 왕위 계승이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 정조 이후 모든 조선의 군왕들이 수원을 찾는 국가적 행사가 되었다. • 원행과 능행이 수원에 끼친 문화 예술적 영향으로 음식, 음악, 복식, 군사 행렬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적인 역할과 기능들이 수원에 정착하게 된다.	한동민 관장 수원화성박물관 (이하생략)

THEME 3 | 1795년 원행의 특별한의미

3. 원행의 사회경제적 의미 I



Time	내 용	비 고
06:18 ~ 07:29	**1795년 원행의 특별한 의미** 사회경제적 의미 I • 1795년 을묘년이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수원 화성에 와서 8일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도로의 개설이에요 • 한강을 건너서 장승배기를 거쳐서 시흥과 안양을 거쳐서 수원으로 오는 이 길이 시흥대로 혹은 수원 별로라고 하는데 이 수원 별로 새롭게 열리면서 삼남으로 흐 르게 되면서 수원이 보다도 커지는 대도회지가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 거기에다가 이제 화성유수부 라고 하는 행정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수원인 근의 5개의 군현을 화성부로 배속을 하면서 더욱더 경기 남부지역을 총괄하는 도 시가 수원 화성이 되는 거죠	한동민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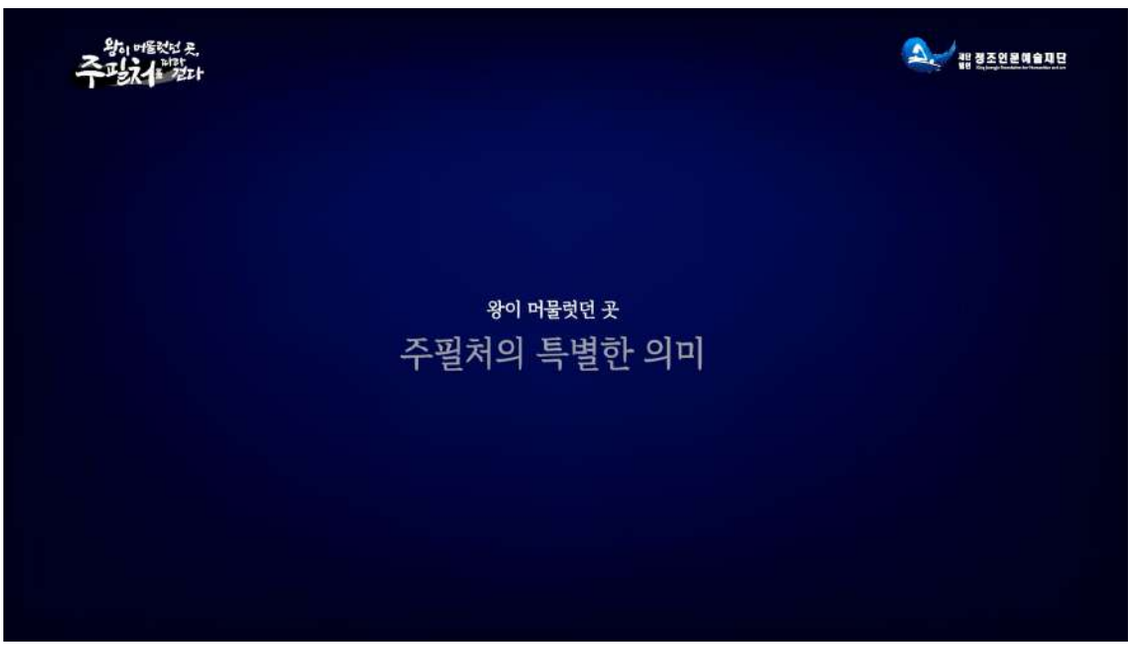
THEME 3 | 1795년 원행의 특별한의미

4. 원행의 사회경제적 의미 II

Time	내 용	비 고
07:31 ~ 08:18	**1795년 원행의 특별한 의미** 사회경제적 의미 II • 1795년에 신작로를 통해서 새로운 상업 활성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물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시흥에서부터 수원까지의 대로를 만들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많은 물품을 싫고 갈 수 있고 • 한강에 배다리를 놓음으로써 많은 물량들이 배가 아닌 다리를 통해서 건너게 해서 서울로 물류가 이동할 수 있게 하는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 행차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 정조는 행차과정에서 노량진 시흥 행궁을 이런 주요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그 장소를 정치적 으로 활용하거나 또 백성들에게 어려운 점을 직접 듣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박사

THEME 3 | 1795년 원행의 특별한의미

5. 원행의 사회경제적 의미 II



Time	내 용	비 고
08:24 ~ 08:57	**왕이 머물렀던 곳** **주필처의 특별한 의미** I. 원행길에 머물렀던 주요장소들을 정치적, 사회적 공간 II. 정조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는 공간 • 정조는 행차과정에서 노량진, 시흥 행궁 등 이런 주요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그 장소를 정치적 으로 활용하거나 또 백성들에게 어려운 점을 직접 듣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1.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Time	내 용	비 고
08:58 ~ 09:07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 1795년 을묘년 전의 능행차길 • 1795년 을묘년 이후의 능행차길 • 2024년 현재 능행차길 실제 거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1.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1) 을묘년 이전 과천 능행차길

Time	내 용	비 고
09:06 ~ 09:19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1.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1) 을묘년 이전 과천 능행차길 • 돈화문~과천~화성행궁 – 70리 • 수원화성행궁~융건릉 – 20리 • 과천 능행차길 돈화문~과천~융건릉까지 거리 90리 "기본적으로 과천 길을 이용하면 옛날 사람들은 70리라고 기록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수원 화성 행궁에서 융건능까지 20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천길은 90리가 됩니다"	이기봉 박사 국립중앙도서관 학예관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1.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2) 을묘년 이후 시흥대로 능행차길

Time	내 용	비 고
09:20 ~ 09:46	1.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2) 을묘년 이후 시흥대로 능행차길 • 돈화문~시흥대로~화성행궁 – 80리 • 수원화성행궁~융건릉 – 20리 • 시흥대로 능행차길 돈화문~시흥대로~융건릉까지 거리 100리 "시흥길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수원화성행궁까지 80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융건릉이 20이니까, 100리 길이었다."	이기봉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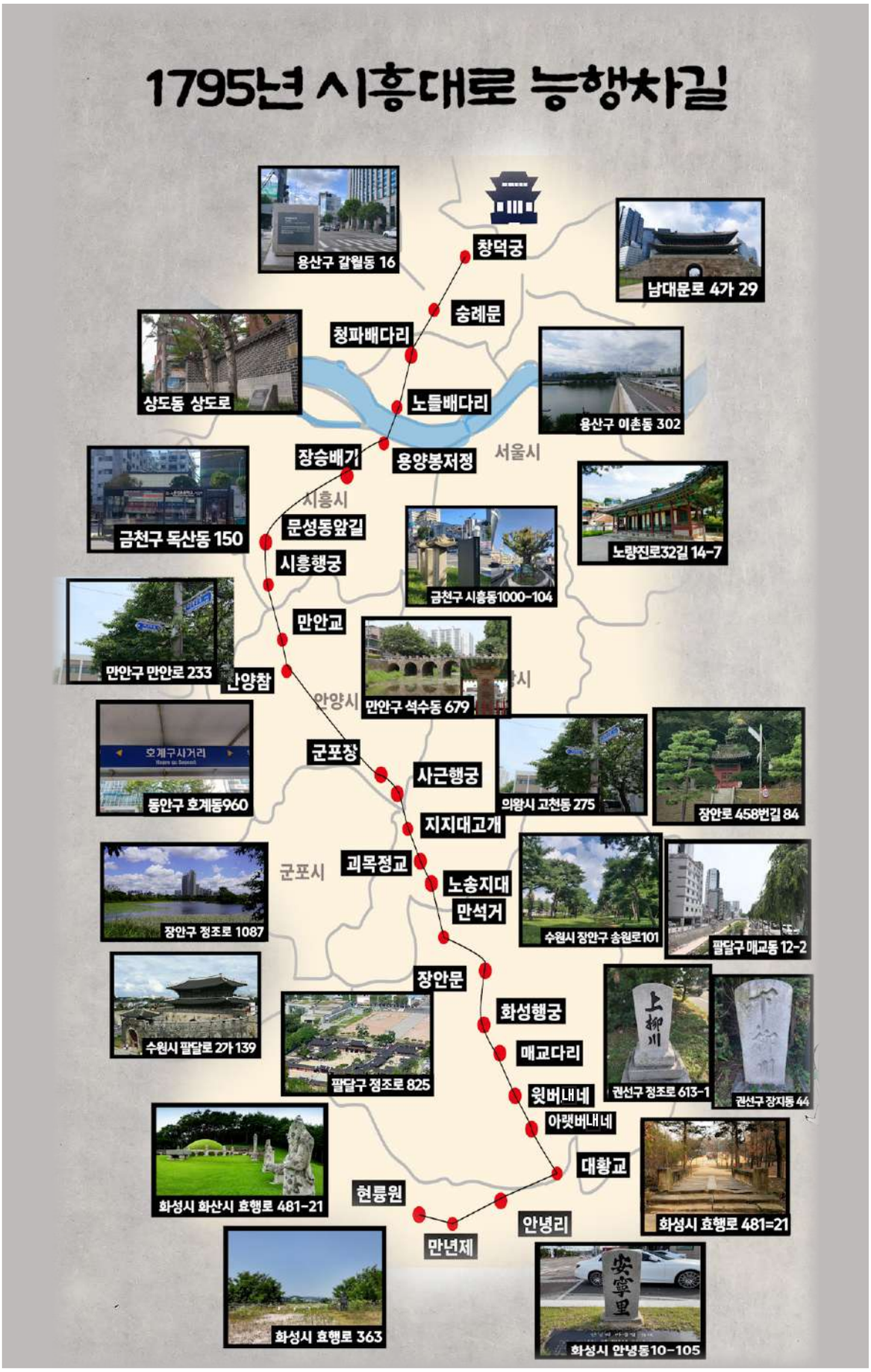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1.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3) 2024년 현재 시흥대로 능행차길 실제 거리

Time	내 용	비 고
09:46 ~ 10:19	3) 2024년 현재 시흥대로 능행차길 실제 거리 • 돈화문~시흥행궁 – 19km • 시흥행궁~수원화성행궁 – 41km • 수원화성행궁~융건릉 – 53km • 시흥대로 능행차길 돈화문~시흥대로~융건릉까지 거리 113km "실제로 요새 킬로미터로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시흥의 행궁까지는 창덕궁돈화문에서 시흥행궁까지 19km 정도 나왔구요. 그 다음 화성행궁까지 41km, 그 다음에 융건릉 까지는 53km 정도 나오더라고요. 90f리 정도면 보통 하루 거리라서 화성을 오는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다니면, 하루만에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1795년 이 거대한 행사 때는, 그런 거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모시고 가고, 이틀 만에 오는 거죠 "	이기봉 박사

1795 시흥대로 능행차길
창덕궁
숭례문
청파배다리
노들배다리
장승배기
용양봉저정
서울시
시흥시
문성동앞길
시흥행궁
만안교
안양참
안양시
의왕시
군포장
사근행궁
지지대고개
군포시
괴목정교
노송지대
만석거
장안문
화성행궁
수원시
매교다리
윗버드네
아랫버드네
화성시
대황교
현륭원
안녕리
만년제


1795년 시흥대로 능행차길
용산구 갈월동 16
창덕궁
남대문로 4가 29
숭례문
청파배다리
상도동 상도로
노들배다리
용산구 이촌동 302
장승배기
용양봉저정
서울시
시흥시
금천구 독산동 150
문성동앞길
노량진로32길 14-7
시흥행궁
금천구 시흥동1000-104
만안교
만안구 만안로 233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79
동안구 호계동960
군포장
사근행궁
의왕시 고천동 275
장안로 458번길 84
지지대고개
괴목정교
군포시
노송지대
만석거
장안구 정조로 1087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01
팔달구 매교동 12-2
장안문
수원시 팔달로 2가 139
팔달구 정조로 825
화성행궁
매교다리
권선구 정조로 613-1
권선구 장지동 44
윗버내네
아랫버내네
대황교
화성시 화산시 효행로 481-21
현륭원
화성시 효행로 481=21
안녕리
만년제
화성시 효행로 363
화성시 안녕동10-105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1) 시흥대로 능행차길 필로

Time	내 용	비 고
10:20~ 10:25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1) 시흥대로 능행차길 필로 • 돈화문~숭례문-청파배다리-노들배다리-용왕봉저정-만양고개-장승배기-문성동 앞길- 시흥행궁- 만안교-안양참-군포장-사근행궁-지지대고개-융건릉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2) 숭례문~청파배다리

Time	내 용	비 고
10:26 ~ 10:35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2) 숭례문~청파배다리 "시흥길을 선택할 때는 서울 숭례문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청파배다리' 라고 지금도 그 표석이 남아있습니다"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3) 노들배다리~장승배기

Time	내 용	비 고
10:35~ 10:49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3) 노들배다리~장승배기 "그걸 통해 가지고 노들나루를 넘습니다.노들을 넘고 그다음에 현재 국도 1호선이 아니라 실제로 장승배기라는 조그만 고개를 넘습니다. 그게 가장 최단코스거든요"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4) 문성골 앞길~시흥행궁

Time	내 용	비 고
10:49~ 10:55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4) 문성골 앞길~ 시흥행궁 "그다음에 지금 시흥 인터체인지 너머에 문성골이라는 동네 앞을 지나고 그 다음이 시흥행궁이었지요"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5) 만안교~안양참

Time	내 용	비 고
10:56~ 11:16	5) 만안교~ 안양참 "그다음에 시흥행궁을 지나면 현재의 만한교라는 다리가 지금은 조금 (그 위치를) 옮겼습니다. 옛날에는 안양천에 있었는데 조금 옮겼는데, 지금 만안교 자리. 그 만안교는 요번(1795년)행사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지만, 옛날에 그냥 돌다리가 아닌 다리로 만들어서 건넜고요. 그 다음에 안양역이 있는 데가 안양참 그 정도예요"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6) 군포장(호계삼거리)~사근행궁

Time	내 용	비 고
11:16~ 11:23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6) 군포장(호계삼거리)~사근행궁 "그다음에 호계삼거리. 거기를 지나서 그다음에 사근 행궁까지 걸어옵니다"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7) 지지대 고개~노송지대

Time	내 용	비 고
11:24~ 11:30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7) 지지대 고개~노송지대 "사근행궁 지나면 지지대 고개는 넘구요. 그다음 노송지대를 지나고 "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8) 만석거~장안문

Time	내 용	비 고
11:24~ 11:30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8) 만석거~장안문 "그다음에 만석거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장안문 통해서."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9) 화성행궁~매교다리

Time	내 용	비 고
11:32~ 11:36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9) 화성행궁~매교다리 • 이기봉박사 "수원화성행궁으로 갔다.그리고 매교다리를 지나서"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10) 윗버드내~아랫버드내

Time	내 용	비 고
11:37~ 11:40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10) 윗버드내~아랫버드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윗버드내, 아랫버드내를 지납니다"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11)대황교~안녕리

Time	내 용	비 고
11:40~ 11:46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11)대황교~안녕리 "그렇게 하면서 대황교를 지나가고 안녕리"	이기봉 박사

THEME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2. 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12) 만년제~현릉원(융건릉)

Time	내 용	비 고
11:46~ 11:49	2.돈화문에서 현릉원까지 필로 개요 12) 만년제~현릉원(융건릉) • 이기봉박사 "만년제를 지나고 그다음이 융건릉 입니다. 이 코스를 이용했습니다"	이기봉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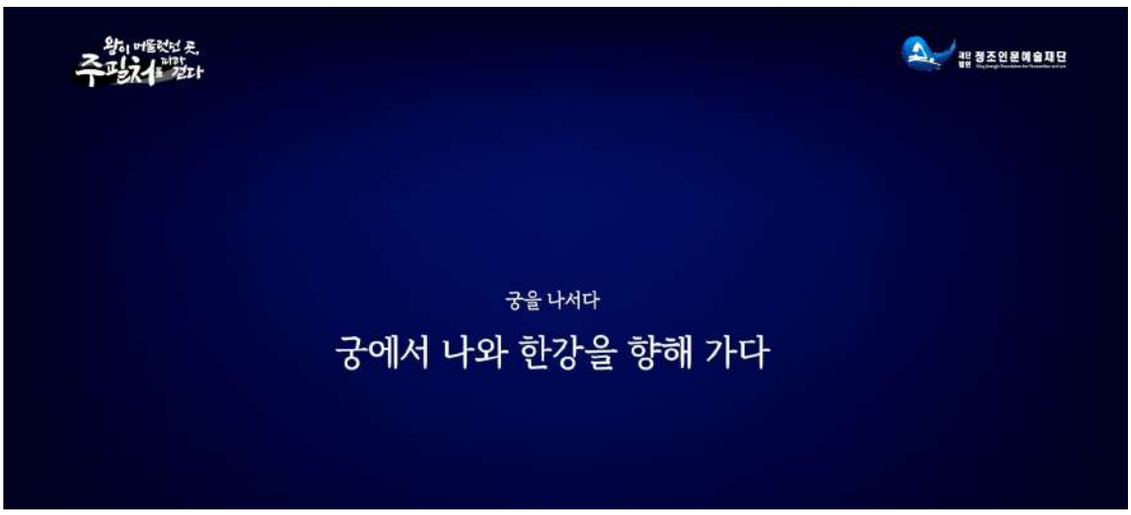
THEME5 | 창덕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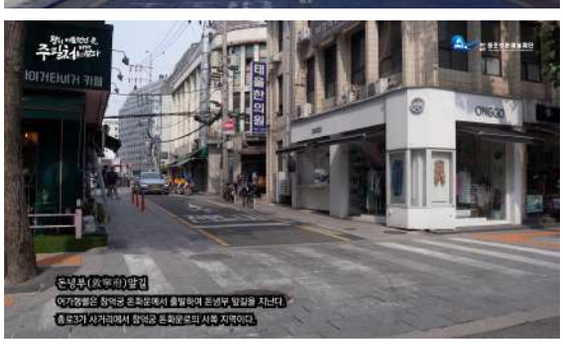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11:49~ 12:26	**창덕궁과 정조** "정조는 이 창덕궁에서 평생을 생활을 하게 됐고 어머님과 함께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창덕궁의 별궁이라고 할 수 있는 창경궁에 거주하고 계시고, 정조는 창덕궁에 있었지만 큰 틀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은 궁궐이라고 해서 하나의 궁으로 인식되고 있죠. 정조가 인정전에서 출발을 해서 진선문을 나와서 바로 이 곳 '돈화문'앞으로 옵니다. 바로 이 돈화문 앞에서 전체 행렬이 출발하게 되죠"	김준혁 박사

THEME6 | 궁을 나서다

1. 궁에서 나와 한강을 향해가다

1) 돈화문~돈녕부 앞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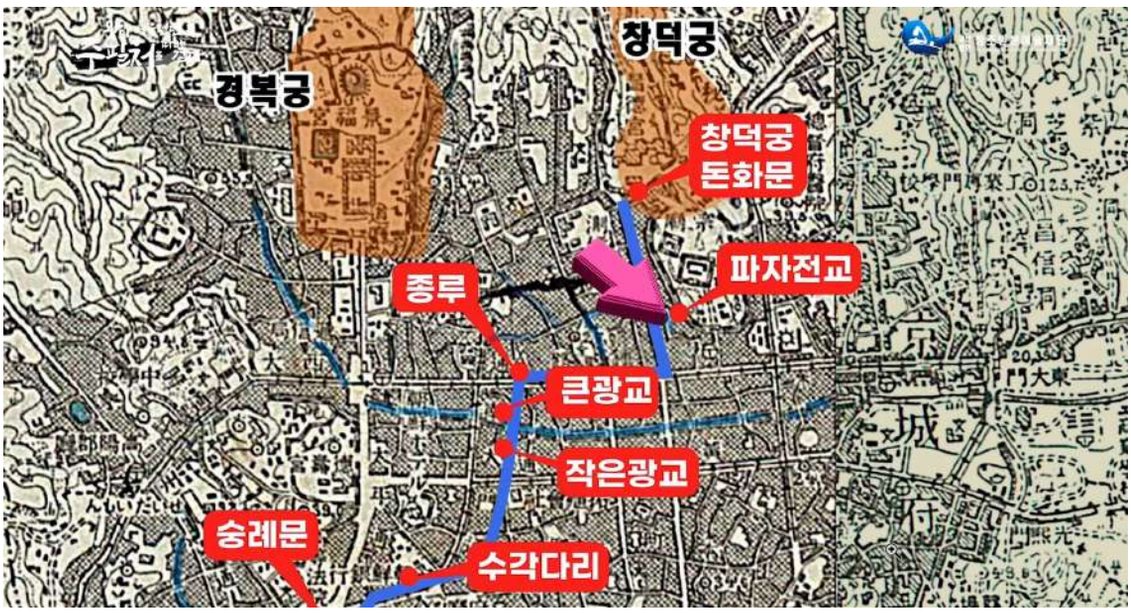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12:26~ 13:09	1) 돈화문~돈녕부 앞길 • 드디어 궁을 나선 행렬은 보현봉이 품은 돈화문을 뒤로하고 길을 나선다. 조선시대에 조정의 의례와 하례 제사와 의식을 담당하던 통례원 터를 지난다. • 돈녕부는 조선시대 종친부의 들지 못하는 임금의 친척과 위촉을 위한 예우 기관이다. • 고지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朝鮮五万分一地形圖) 출처: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사데이터베이스	나래이션

THEME6 | 궁을 나서다

1. 궁에서 나와 한강을 향해가다

2) 파자전교



Time	내 용	비 고
13:10~ 13:30	2) 파자전교 • “한때는 우리나라의 영화 개봉관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단성사 앞에 어가행렬이 지났던 파자교터가 있다. 혜정교, 철물교와 함께 격정이 허용되어, 백성이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곳이었다.” 자료 : 단성사 옛전경(1962)–국가기록원	나래이션

THEME6 | 궁을 나서다

1. 궁에서 나와 한강을 향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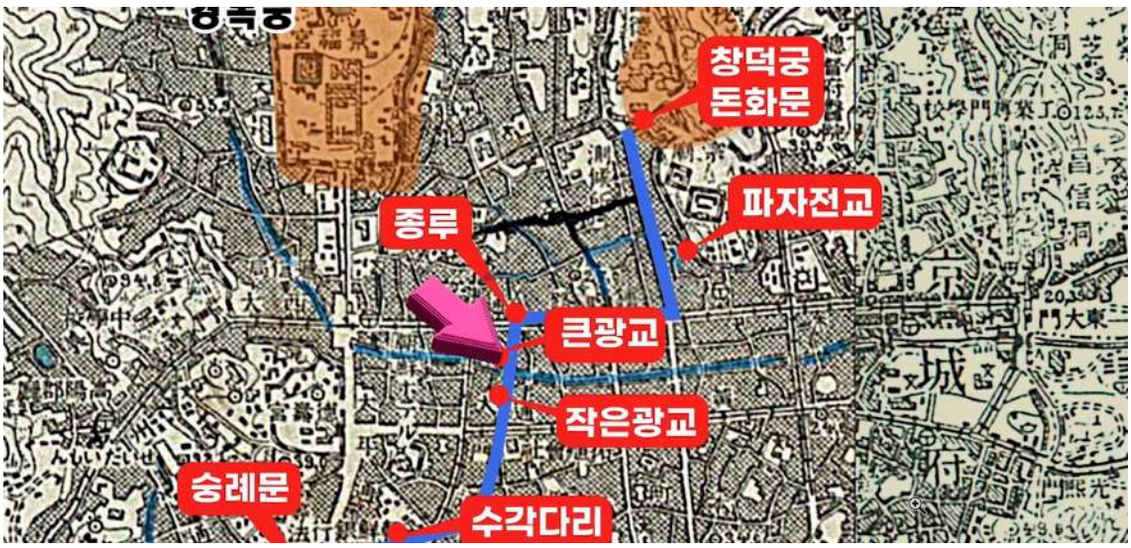
3) 종루(보신각)

Time	내 용	비 고
13:40~ 14:17	3) 종루(보신각) • 행렬은 종루 보신각 터를 향해 간다. • 종루가 있었던 보신각터다.	나래이션

THEME6 | 궁을 나서다

1. 궁에서 나와 한강을 향해가다

4) 큰광교-작은광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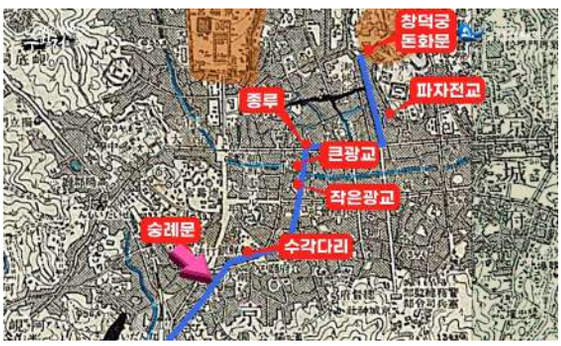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14:27~ 15:11	4) 큰광교-작은광교 • 청계천에 이르러 광통교를 건넌다. • 광통교는 1410년(태종10년)에 신덕오아후의 옛 무덤 터에 있던 돌을 옮겨와 세운, 도성 최대의 다리로 어가와 사신 행렬이 지나가는 주요 통로였다. 1959년 청계천 복개로 도로 밑으로 묻혔으나, 2015년 청계천 복원과 함께 이곳에 옮겨져 원형의 1/4크기로 복원되었다.	나래이션

THEME6 | 궁을 나서다

1. 궁에서 나와 한강을 향해가다

5) 구리개~동현교~송현~수각다리~숭례문



Time	내 용	비 고
15:12~ 16:19	5) 구리개~동현교~송현~수각다리~숭례문 • 지금의 명동, 중구 을지로2가 18번지 일대에 이른다. 이곳은 토양이 황토로 이루어져 있어 몹시 질고 먼 곳에서 보면 마치 구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것 같아 구리 빛이돈다하여 '구리개'라 불렀다. 한자로 동현이라고도 하였고 이 지역에 '동현교'가 있었다. • 소나무가 울창하여 솔재라 했고 한자로 송현이라 불리던 한국은행 앞을 지난다. • 청계천 지류인 창동천에 있던 다리 '수각다리'를 건너 숭례문으로 향한다 • 이제 숭례문을 지나 행렬은 4대문 밖으로 나선다	나래이션

THEME6 | 궁을 나서다

1. 궁에서 나와 한강을 향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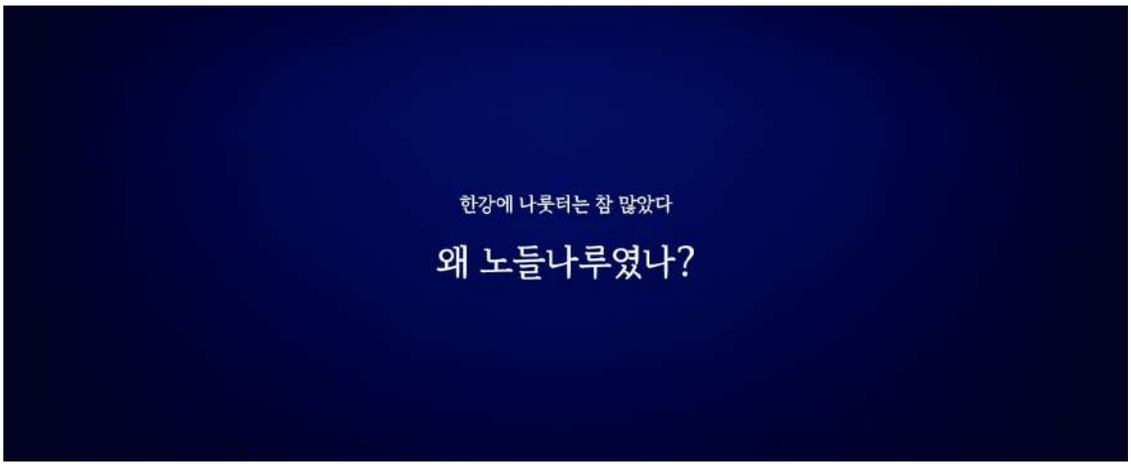
6) 청파배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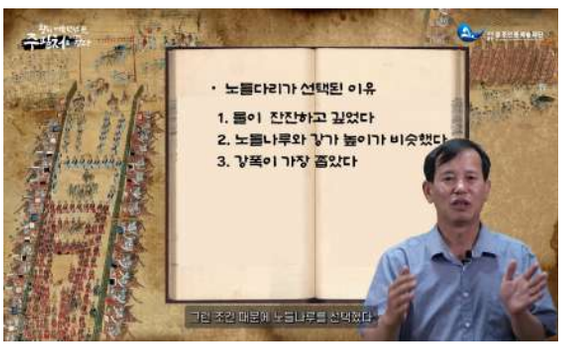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16:19~ 16:49	6) 청파배다리 • 남산에서 한강으로 향하는 지류인 '만초천'을 건너는 '청파배다리'를 건넌다. 경부철도 부설로 만초천은 복개되었고 자연히 배다리도 사라졌다. 서울역 남단으로 철길이 지나는 쌍굴다리 인근으로 '청파배다리'의 흔적을 기록한 표석이 남아있다	나래이션

THEME6 | 궁을 나서다

2. 한강에 나룻터는 참 많았다

1) 왜 노들나루였나?





THEME6 | 궁을 나서다

2. 한강에 나룻터는 참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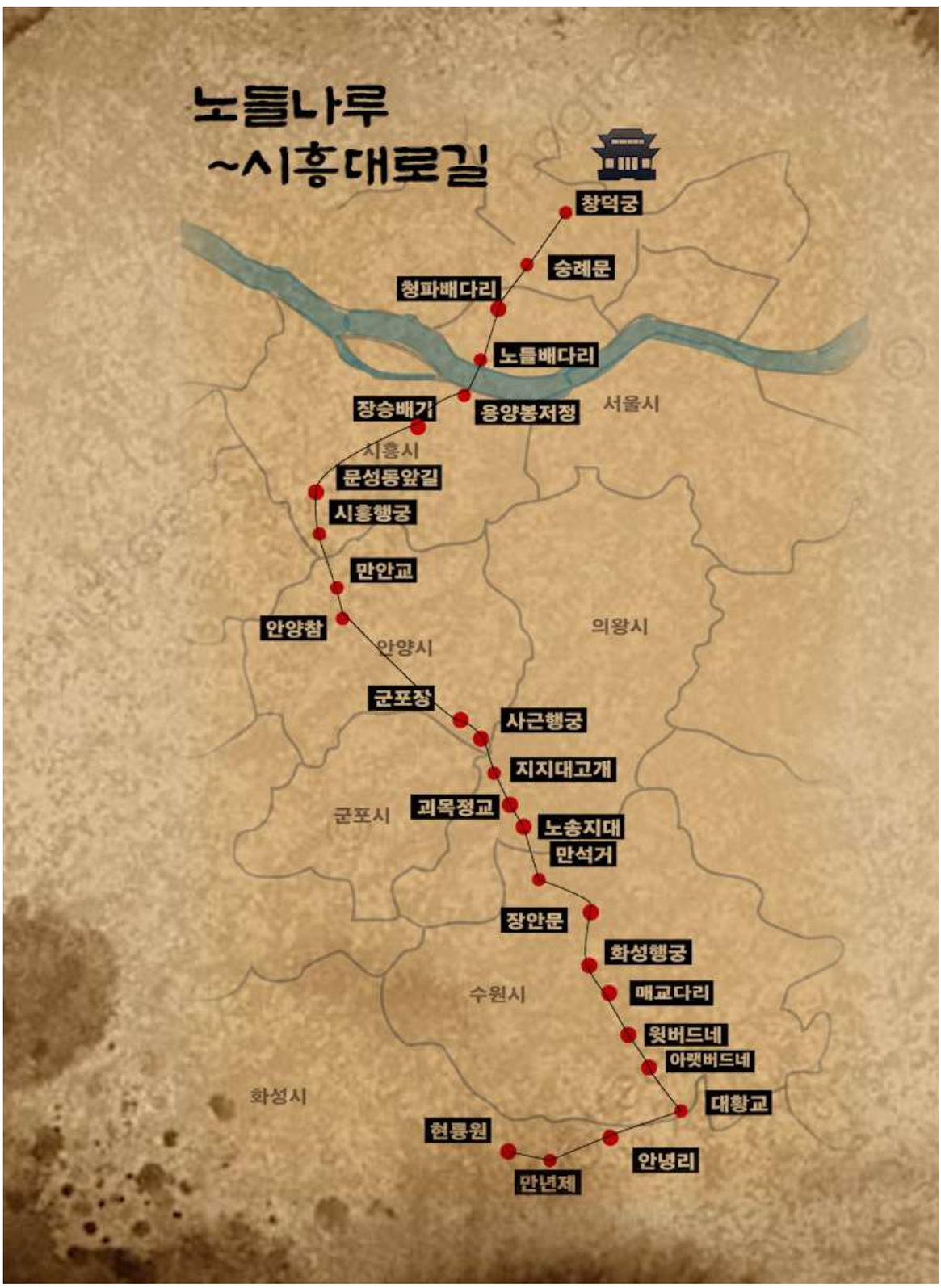
1) 왜 노들나루였나?

Time	내 용	비 고
16:50~ 18:44	1) 왜 노들나루였나? “ 원래 배다리는 웬만한 나루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가겠다하면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좀 덜 들고 이런곳을 선택을 해야 해요. 보통 과천으로 가는 길이라면 동재기 나루라고 지금 현충원 앞에 있는 니루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가면 되고, 엄청나게 잘 안 만들어도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가겠다는 의미를 부여를 하니까, 가장 안전한 구간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물이 잔잔하고 깊어요. 나루는 대부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배다리를 만들려면 양쪽 높이가 비슷해야 된다. 보통 다른 한쪽은 절벽지형에 가깝고 반대편은 꼭 모래 사장 입니다.. 그래서 만들 수는 있는데 안전함에 있어서 좀 약한 거죠. 다행히 여러 나루를 보다가 노들나루에, 그 반대편에 현재 노들섬이 있습니다. 현재 한강은 노들섬 북쪽도 한강이지만 옛날에는 노들섬과 노들나루사이에 평상시에 물이 있고, 홍수 때만 노들섬 북쪽에 까지 물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비슷한 지형에 형성이 됐고 그건 폭이 제일 좁았답니다. 당연히 물은 깊었고 잔잔하고 그런 조건 때문에 노들나루를 선택했던것 같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래사장인거죠. 정조도 여기를 걸어간거죠. 모래사장 위를 걸어간겁니다.” “저기 노들 나루가 있죠? 폭이 좀 넓죠? 여기는 양쪽이 높기 때문에 물이 늘어나도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진 않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폭이 여기가 그래도 가장 좁은 자리이죠. 딱 저자리(한강대교)에 노들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기봉 박사

THEME6 | 궁을 나서다

2. 한강에 나룻터는 참 많았다

2) 노들나루와 시흥대로 필로



THEME6 | 궁을 나서다

2. 한강에 나룻터는 참 많았다

3) 동재기 나루와 과천길 필로

THEME6 | 궁을 나서다

2. 한강에 나룻터는 참 많았다

4) 과천길이 아닌 안전하고 평평한 시흥길을 선택하다

Time	내 용	비 고
18:45~ 20:01	4) 과천길이 아닌 안전하고 평평한 시흥길을 선택하다 “ 그런데 노들나루를 통해 시흥행궁을 통해서 오는 길은 과천길보다 멀어요.. 다만 노들나루를 선택하는 동안에는 ‘중간에 어떤 길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또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정조라는 임금이 과천길을 그냥 이용했다고 해요. 그 길이 노들라를 통해서만 시흥 길이보다 더 짧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수원 오는 사람들은 다 과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다가 1795년 행사를 진짜 거창하게 한 거잖아요.. 퍼포먼스를 되게 장엄하게 한 거잖아요. 인원도 아까 6000여명 아니면 실제로 그림 속에는 1600 여명, 그 다음,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동생들도 데리고 가고,... 진짜 거대한 행사예요. 이 거대한 행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전입니다 그리고 편리해야해요. 거리는 조금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때 남태령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 거대한 행사를 하기에는 좀 험한 길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본인만 다녔으면 그렇게 험한 길이 아니었지요. 그 전에 계속 다녔으니까. 아마 이 거대한 정식 퍼포먼스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하고 좀 평지에 가까운...그래서 시흥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기봉 박사

THEME6 | 궁을 나서다

3. 노들나루에 배다리를 설치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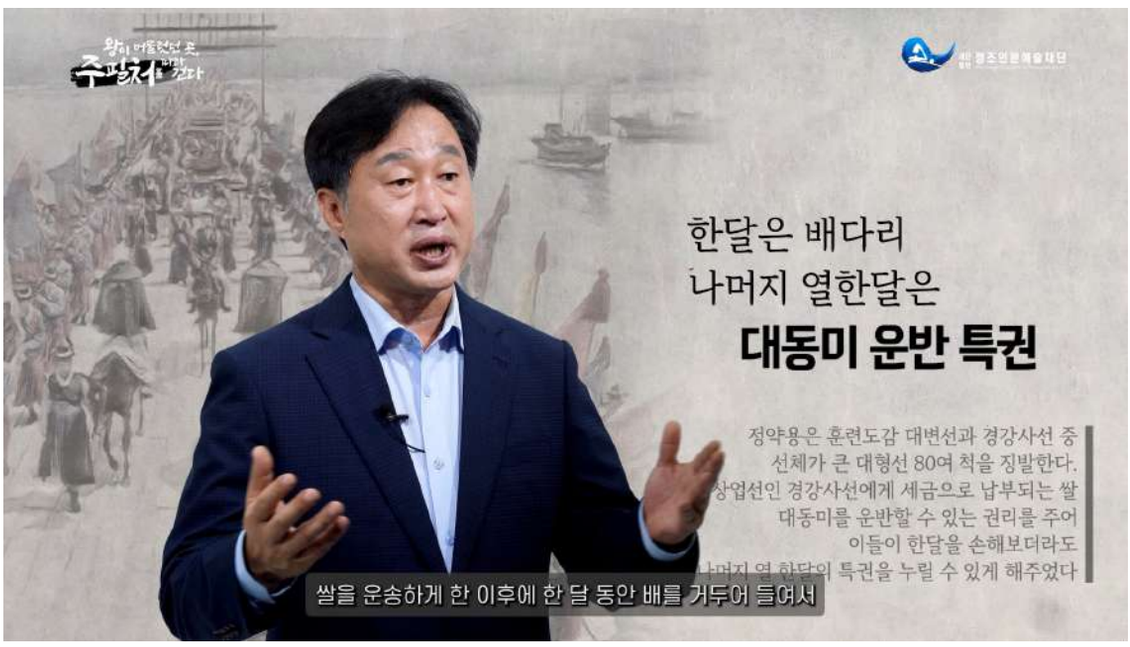
1) 배다리의 설치와 운영

Time	내 용	비 고
20:02~ 21:32	1. 노들나루에 배다리를 설치한 이유 • 정조의 행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배다리 입니다. 정조는 1789년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약용으로 하여금 배다리를 설계하게 합니다. 배다리를 설계하게 한 후에 직접 시공책임까지 맡게 하고 그 뒤에 주교사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항상 행차때마다 한달동안 배다리를 만들고, 그 배다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이 한강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다리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독특합니다. 정조는 서른여섯 척의 세미선을 만듭니다. 국가가 쌀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운송배를 만들게 되죠 굉장히 큰 배를 만들게 됩니다"	김준혁 박사

THEME6 | 궁을 나서다

3. 노들나루에 배다리를 설치한 이유

2) 정조와 백성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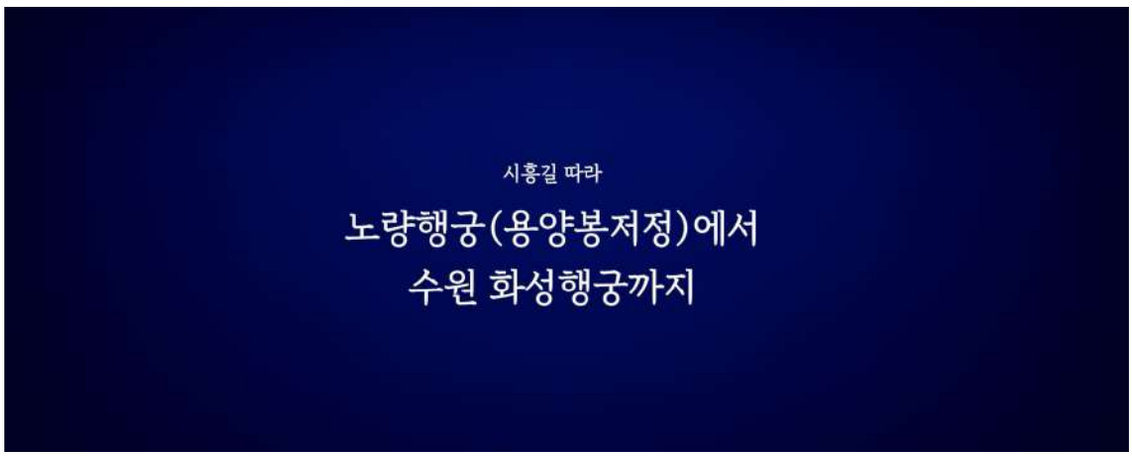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20:02~ 21:32	2) 정조와 백성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운영 • 그래서 이 배를 객주들에게 불하를 하게 하죠. 그래서 11개월 동안 이 배를 이용해서 쌀을 운송하게 한 이후에 한 달 동안 배를 거두어 들여서 배다리를 만드는 시공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특별하게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상인과 정조 왕실이 서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치면 윈윈 하는 그런 효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혁 박사

THEME7 | 시흥길따라

1. 노량행궁(용양봉저정)에서 수원화성행궁까지

1) 용양봉저정 I



Time	내 용	비 고
21:33~ 22:25	1) 용양봉저정 I • 이곳은 바로 용양봉저정입니다. 용양봉저정은 흔히 노량 행궁이라고 하죠. 이 노량행궁에서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출발하는 첫 날 점심식사를 하게 됩니다. 점심식사를 이곳에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시흥대로를 통해서 시흥행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김준혁 박사

THEME7 | 시흥길따라

1. 노량행궁(용양봉저정)에서 수원화성행궁까지

1) 용양봉저정 II

Time	내 용	비 고
22:26~ 23:38	1) 용양봉저정 II "기본적으로 노들나루는 건너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행차할 때 점심 먹는 곳이었어요. 행궁이란 이름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머무는 공간은 행궁입니다. 거기도 '노량 행궁'이라 불리기도 하고, 아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들나루라고 했으니까 '노들 행궁'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행궁'이 된 거고 '주교사'라는 관청을 여기다 세웠기 때문에 건물도 많이 만들었겠죠. '용양봉저정'은 뭐냐? 원래 정자에서 임금이 밥을 먹으면서 앞을 바라보면 용이 머리를 쳐들고서 솟아오르는, 아니면 봉황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앉아 있으면 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북악산, 북한산, 남산 이런 산줄기 흐름이 그렇게 보였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앞에 건물들이 너무 커서 그 풍경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그 이름에 대한 의미기 저절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봉 박사

THEME8 | 시흥길의 새로운 시작

1. 시흥행궁까지의 행로

1) 만양고개

Time	내 용	비 고
16:19~ 16:49	1) 만양고개 • 용양봉저정을 떠나 사육신묘 앞에서 서남쪽 매봉산을 향해 올라가는 만냥고개로 접어든다. 만양고개는 고개가 워낙 길어 마냥 넘어간다고 해서 이름이 불리어졌고 조선시대 옛사람들이 이곳을 넘어 장승배기에서 노량나루로 오고가는 옛길로 중요했다. 한강북쪽에서 바라봤을때 높게 솟아있는 구릉이 고개였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길의 폭은 좁은 편이고 주택들이 길을 따라 즐비해 있다. 옛날 길의 크기를 이로써 짐작해 볼 수 있다. 요즘은 '노량진 고시촌 골목'으로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다.	나래이션

THEME8 | 시흥길의 새로운 시작

1. 시흥행궁까지의 행로

2) 장승배기

Time	내 용	비 고
24:46~ 25:26	2) 장승배기 • 만양고개를 벗어 나오면 장승배기가 나온다. 이곳은 노량진동,상도동,대방동이 접한 지역으로 조선시대 노량진 선창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당시, 울창한 나무숲으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다한다. 이에 정조는 안심하고 행차할 수 있도록 "장사(壯士) 모양을 한 남자 장승을 세워 천하대장군으로, 하나는 여자 장승을 세워 지하여장군으로 하라" 고 어명을 내렸다. 곧 두개의 높다란 장승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곳에 '장승배기'라는 지명이 붙여지게 되었다.	나래이션

THEME8 | 시흥길의 새로운 시작

1. 시흥행궁까지의 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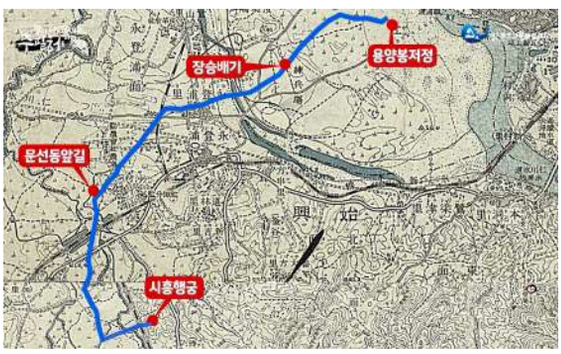
3) 문성동 앞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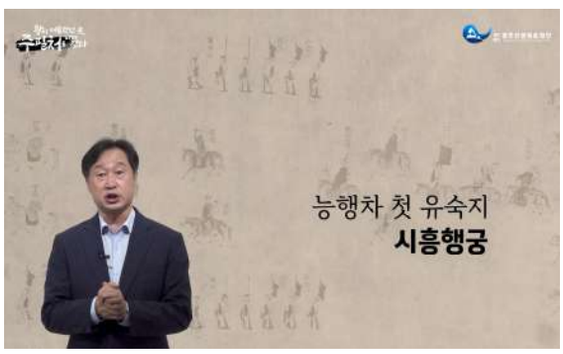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25:27~ 25:57	3) 문성동 앞길 • 어가는 다시 '장승백이고개'를 지나 지금의 상도동길로 불리는 길을 따라 번대방평(지금 동작구 대방동)으로 향했다. 여기서 방향을 서남쪽으로 틀어 시흥현 문성동 앞길에 이른다. 문성동앞길은 지금의 시흥대로에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문성동은 지금의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가 만나는 지점쯤으로 오늘날 신림동에서 독산동으로 나 있는 길을 '문성로'라고 부르고 있고 '문성초등학교'라는 이름에서 '문성동앞길' 이라는 옛지명의 흔적을 찾아볼수 있다.	나래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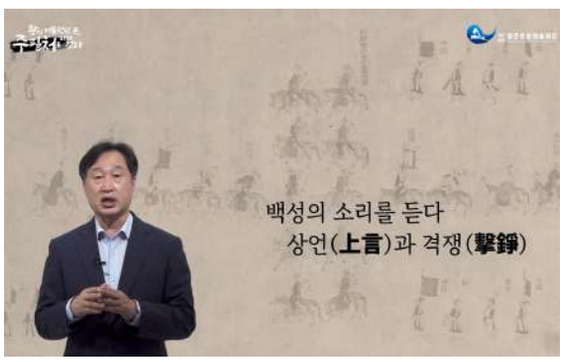
THEME8 | 시흥길의 새로운 시작

2. 시흥행궁

1) 행차 첫날밤 유숙지 시흥행궁







Time	내 용	비 고
25:59~ 26:48	1) 능행차 첫 유숙지 시흥행궁 "시흥의 행궁은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가는 과정에서 저녁에 주무셨던 곳입니다. 시흥행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정조는 이 시흥 행궁에서 돌아오는 날 항상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명 상원과 격쟁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바로 이곳 시흥행궁에서 하게 됩니다."	김준혁 박사

THEME8 | 시흥길의 새로운 시작

2. 시흥행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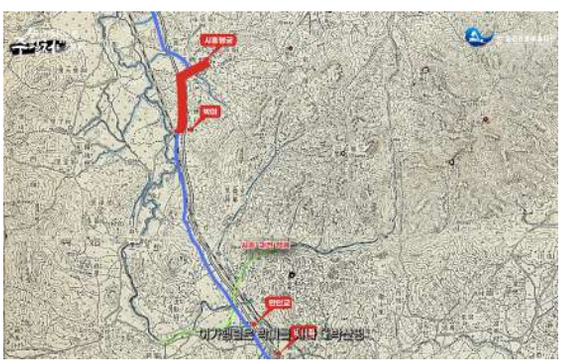
2) 시흥환어행렬도로 들여다 본 시흥행궁

Time	내 용	비 고
26:49~ 28:32	2) 시흥환어행렬도로 들여다 본 시흥행궁 • 행차는 문성동을 떠나 이날 밤 유숙지인 시흥행궁으로 향했다. 정조 14년(1790) 2월부터 현륭원행을 하게 되는데 남태령을 거치는 과천로는 교량이 많고 고개가 있어 행차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길을 제치하는 농민들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근심하여 방도를 낼 것을 조신들에게 명하였는데 조신들은 금천로(시흥로)가 길이 평탄하고 넓고 과천로 보다 편하다고 하여 정조의 재가를 받았다.이에 1794년(정조18) 경기감사 서용보의 주청으로 관서의 남당성을 쌓고 남은 돈 13만 3천여 냥을 우선 가져다가 안양주필소와 금천행궁을 짓고 금천로를 개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1795년(정조19) 원행부터 금천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정조의 원행이 금천을 지나게 됨에 따라 금천의 행적적 군사적 중요성은 높아졌다. 1795년 금천의 등급을 현감에서 현령을 파견하는 고을로 격상하고 지명도 시흥이라 개칭하였다.이때부터 금천행궁은 시흥행궁으로 금천로는 시흥로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 시행행궁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화성능행도병(華城陵幸圖屛)』의「시흥환어행렬도(始興還御行列圖)」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시흥행궁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비교적 넓은 대로에 연결된다. 행궁 입구에는 커다란 홍살문이 세워져 있으며 행궁 주변을 둘러싸고 삼엄한 호위를 하고 있는 군사들이 보인다.현재 시흥행궁은 없어졌고 그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은행나무 사거리 주변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래이션

THEME9 | 사근행궁으로 가는길

1. 박미,만안,사근

1) 박미~번대방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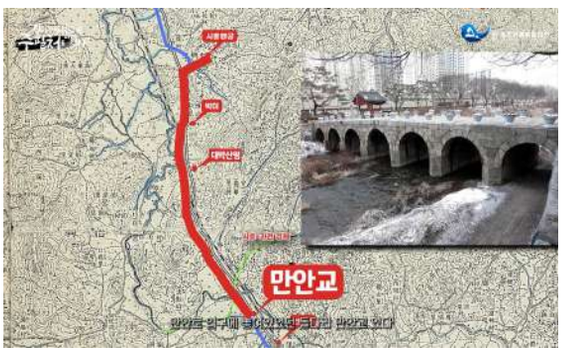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28:33~ 29:05	1) 박미~번대방평 "시흥행궁을 떠난 어가는 안양을 향해 시흥대로를 타고 박미 마을을 지나간다.'박미'는 산을 의미하며 현재 '박미삼거리'라는 지명으로 그 마을의 존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어가 행렬은 박미를 지나, 대박산평, 지금의 금천구 시흥동 석수전철역 부근을 지난다.	나래이션

THEME9 | 사근행궁으로 가는 길

1. 박미, 만안, 사근

2) 만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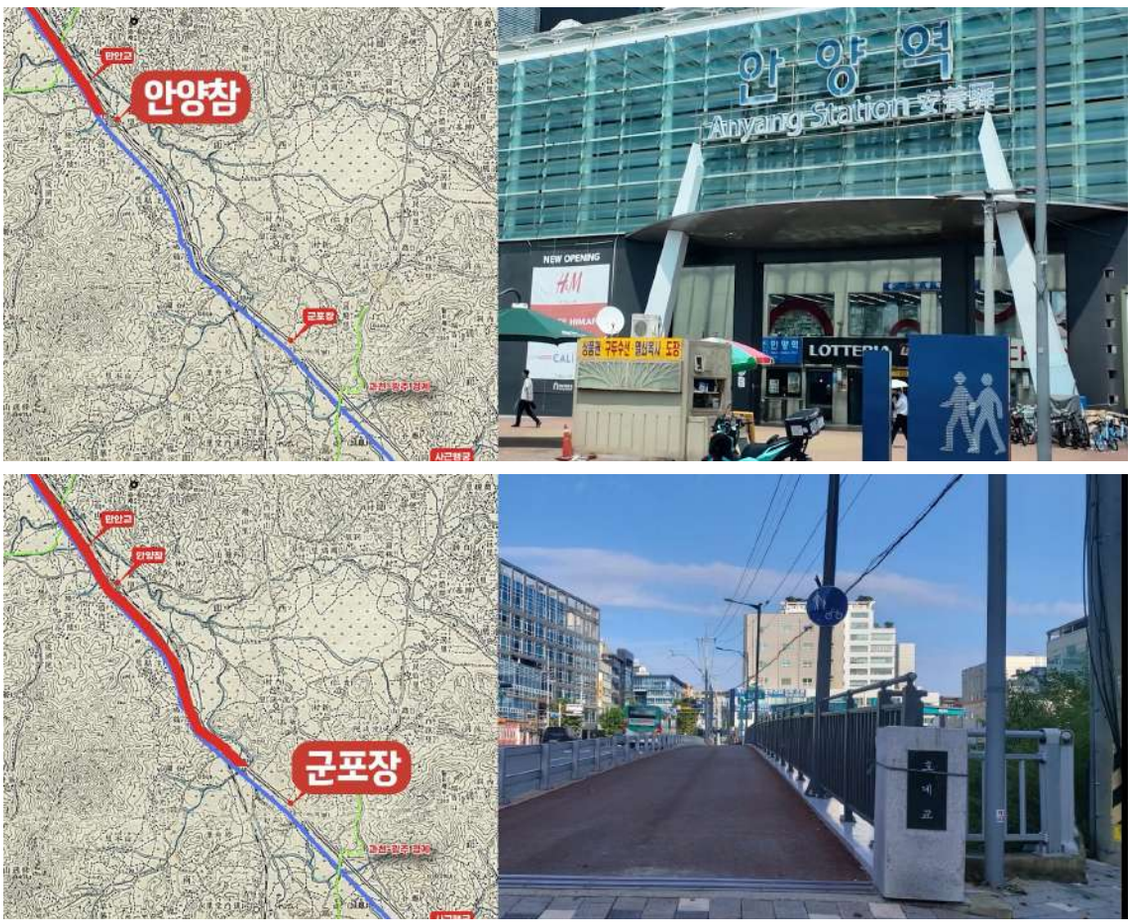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29:08~ 29:52	2) 만안교 • 어가가 다음 도착한 곳은 만안로 입구에 놓여있었던 돌다리 만안교였다. 만안교(萬安橋)는 애초에 왕이 행차를 위한 임시 가설한 나무다리 였으나 정조가 수원화성을 정기적으로 왕래하게 되면서 돌다리를 만들어 '나 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 쓰게하라'고 정조의 어명에 따라 1795년 경기도 관찰사 서유방에 의해 7개의 아치형의 돌다리로 개수 되었다. 그러면서 이 다리의 이름을 "만세에 걸쳐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다리다"라고 해서만안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 1980년 국도 확장으로 북쪽 200m 위로 이전되었다."	나래이션

THEME9 | 사근행궁으로 가는길

1. 박미,만안,사근

3) 안양참~군포장



Time	내 용	비 고
29:53~ 30:00	3) 안양참~군포장 “ 안양천을 건넌 어가는 안양참, 지금의 안양역을 지나고 군포장을 거쳐 사근행궁으로 향한다”	나래이션

THEME9 | 사근행궁으로 가는 길

1. 박미, 만안, 사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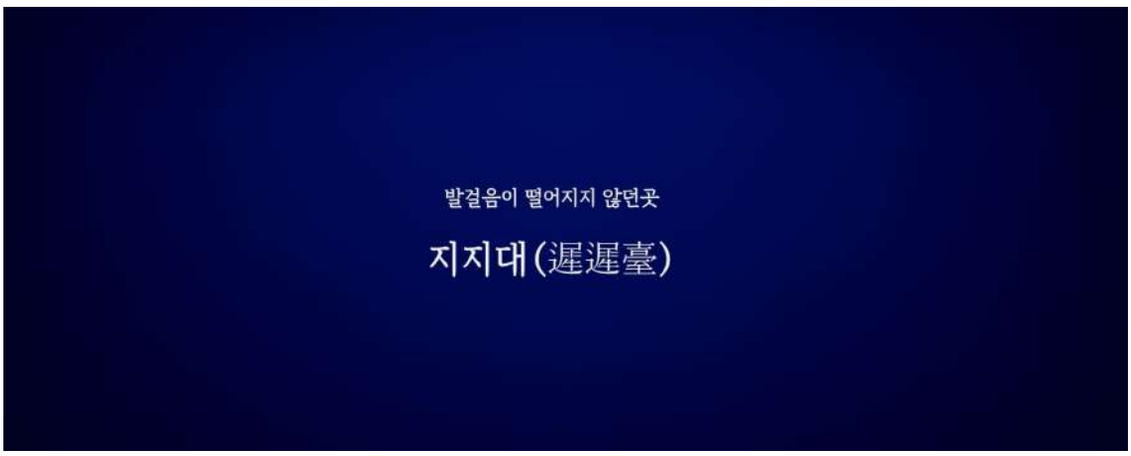
4) 아버지의 묘를 현륭원으로 모시며 머물렀던 곳 사근행궁

Time	내 용	비 고
30:01~ 31:00	4) 아버지의 묘를 현륭원으로 모시며 머물렀던 곳 사근행궁 • 사도세자의 묘를 현륭원으로 옮기던 상여가 잠시 머물렀던 이곳 사근행궁은 1790년 사근평에서 1리 정도 떨어진 곳(고천동 주민센터인근)에 세워졌다.사도세자 생전에 온양온천으로 행차할때 수시로 주정소(晝停所)로 사용된 곳이기도 하므로 행궁이 들어서기 전부터 도성에서 삼남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이곳을 '사근행궁'이라 명명하고 대문에 '주필행궁'이라 현액을 걸어 행궁임을 알린다. 1795년 어머니 혜경궁홍씨와 이곳 '사근행궁'에 들러 수라를 들고 원행길을 이어가게된다. 고천동 주민센터 인근인 의왕시 고천동 272-2번지에 위치한 '사근행궁터'는 이제 고천지역 재개발과 함께 현재는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나래이션

THEME10 | 수원행로 지지대(遲遲臺)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1.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던곳 지지대(遲遲臺)

1) 지지대 명명



Time	내 용	비 고
31:09 ~ 31:40	[지지대]라는 주필처 표석도 존재했다 현재는 주필처 표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지지대라는 이름 이전에는 '사근고개'였다 정조가 [지지대]라고 명명한 이후 오늘날 까지 [지지대 고개]라 칭하고 있다.	김준혁 박사

THEME10 | 수원행로 지지대(遲遲臺)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1.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던곳 지지대(遲遲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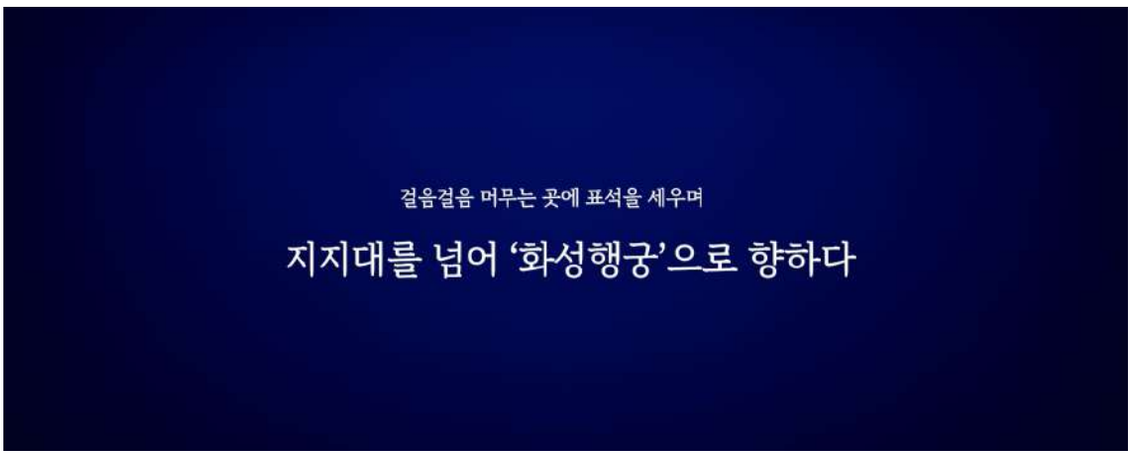
2) 지지대의 의미와 수원과의 관계

Time	내 용	비 고
31:40 ~ 33:17	• 지지(遲遲)는 지지부진하다. 능행하고 난 뒤에 서울로 올라갈 때, 그 고개를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돌아보고 해서 더디다. 정조가 그 고개마루를 넘게 되면 더 이상 아버지의 무덤을 볼 수가 없어서, 지지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조의 효심에 가장 핵심적인 장소성을 부여하는 거죠. • 1905년에 경부철도가 부설될 때, 원래는 지지대 고개 아래에 터널을 뚫고, 군포에서 의왕 고천으로 해서 지지대 터널을 뚫고, 화서문을 거쳐 팔달산 옆자락으로 해서, 대황교로 가는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부민들이 지지대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데모를 통해서, 지금의 철도 노선 지금의 지금 매산동에 철도 노선으로 바꿀 만큼, 지지대와 팔달산은 정조의 사당이 모셔져 있는 '화령전'을 함부로 치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정조 임금이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 중의 하나인 지지대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수원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철도 노선 자체를 바꿀 만큼 수원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한동민 관장

THEME10 | 수원행로 지지대(遲遲臺)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2. 화성행궁으로 향하며 표석을 세워 왕이 머문곳을 알리다.

1) 괴목정교



Time	내 용	비 고
33:17 ~ 34:01	• 지지대고개를 지난 행렬은 괴목정교를 지난다. • 괴목정교 표석은 정조대왕이 수원의 지지대 고개에서 현륭원으로 가는 길의 주요 지점에 세웠던 16개 표석중의 하나이다. 현 위치에는 복제표석이 놓여져 있고 진품은 수원역사박물관에 옮겨 보관중이다.	나래이션

THEME10 | 수원행로 지지대(遲遲臺)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2. 화성행궁으로 향하며 표석을 세워 왕이 머문곳을 알리다.

2) 미륵당(법화당), 노송지대, 진목정

Time	내 용	비 고
34:02 ~ 34:33	• 어가행렬은 괴목정교를 지나 미륵불이 안치되어 있는 지금의 법화당 즉 미륵당을 거쳐 노송지대에 이른다. • 노송지대를 지난 어가는 진목정에 이르자 당시 총리대신인 체제공과 장용영의 친위군이 어가를 맞이했다. 어가는 진목정에 잠시 머물러 미음다반을 어머니께 올렸다.	나래이션

THEME10 | 수원행로 지지대(遲遲臺)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2. 화성행궁으로 향하며 표석을 세워 왕이 머문곳을 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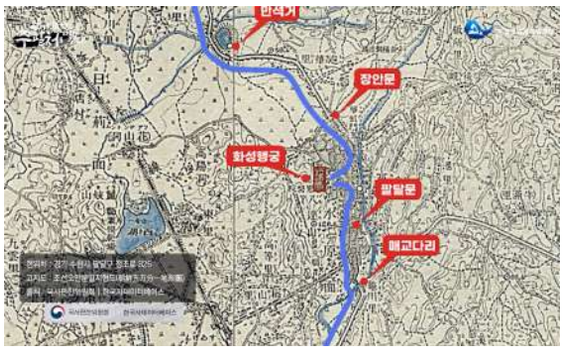
3) 여의교, 만석거, 영화정, 장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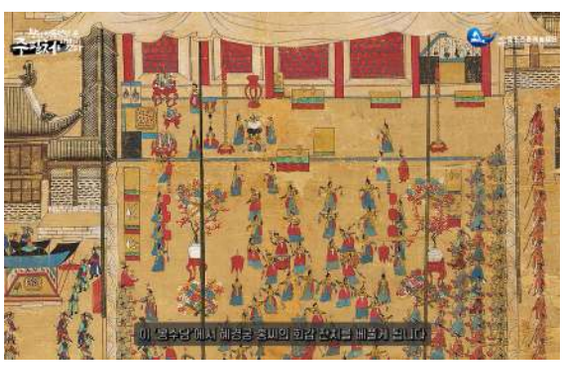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34:33 ~ 34:55	• 진목정에서 나선 행렬은 여의교를 지나 정조의 애민정신이 깃든 막석거를 거쳐 영화정을 지나 장안문에 이른다. 행렬은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만나러 나선길에 화성행궁에 도착한다.	나래이션

THEME10 | 수원행로 지지대(遲遲臺)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2. 화성행궁으로 향하며 표석을 세워 왕이 머문곳을 알리다.

4) 화성행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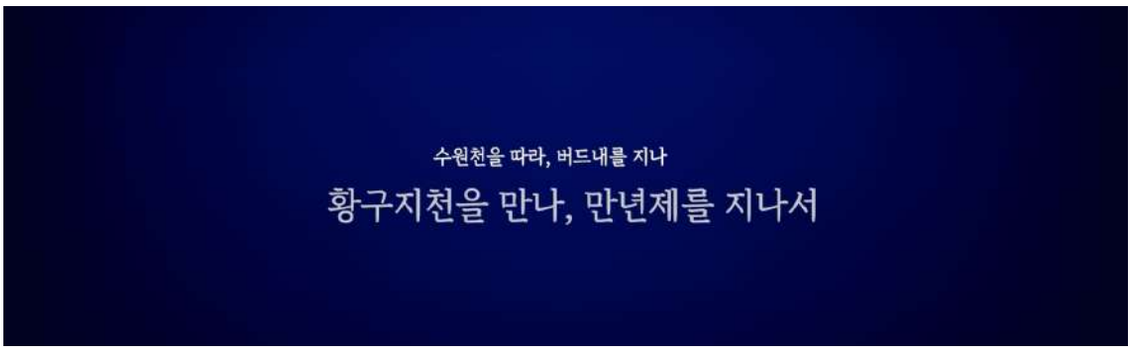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34:56 ~ 36:53	• 현륭원을 1789년 수원부 화산으로 옮겨온 후에, 정조 임금은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수원에서 마련하고자 화성을 축성하는 가운데, 화성행궁도 증축을 하게 돼서 500칸이 넘는 대규모의 행궁을 조성하게 됩니다. • 조선시대에 10여개가 넘는 행궁이 있었지만 500여칸이 넘는 규모의 행궁은 수원화성이 유일했습니다. 수원화성 행궁에 전각들의 이름도 정조임금이 직접 지은 이름들도 있었고요, 직접 어필로 내려서 현판을 삼은 건축물 들도 현재 그런 현판들도 남아있습니다. • 특히 지금 화성 행궁에 정전이라고 하는 곳이 '봉수당'인데요. 이 '봉수당'에서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장남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봉수] : 어머니의 회갑 잔치, 말하자면 장수를 받든다는 의미의 '봉수당'이라는 이름을 새로 내려서 정성이 깃든 곳이라고 할 수 있고, •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원에 지은 정조의 궁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세영 학에연구사 화성박물관

THEME11 | 수원천을 지나 황구지천을 만나 만년제를 지나서 현륭원으로

1. 화성행궁을 나와 수원천을 따라 다시 시작된 원행길

1) 수원화성 밖으로 나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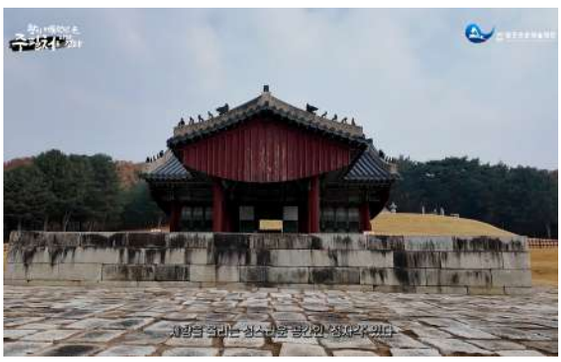


Time	내 용	비 고
36:54 ~ 37:40	• 행궁을 나와 팔달문을 거쳐 지금의 정조로를 따라 현재 매교삼거리인 '상류천점'앞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어머니께 미음다반을 드리고, • 다시 출발하여 상류천, 하류천, 황교(황교는 현재 수원공군비행장 원내에 있다)를 지나 대황교에 이른다. • 대황교는 수원시 대황교동과 화성시 황계동의 경계에 있었는데 군 비행장에 속하게 되어 현재는 융릉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나래이션

THEME11 | 수원천을 지나 황구지천을 만나 만년제를 지나서 현륭원으로

1. 화성행궁을 나와 수원천을 따라 다시 시작된 원행길

2) 현륭원에 도착하다.



Time	내 용	비 고
37:41 ~ 39:39	• 대황교를 지나 유첨현을 거쳐 유근교(안녕리표석)에서 말을 내려 걸어서 만년제를 거쳐 현륭원 동구에 이른다. • 만년제는 정조의 치수를 통한 권농과 애민정책을 보여준다 • 융릉은 조선 21대 왕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조(사도세자,1735~1762)와 현경황후 홍씨(혜경궁,1735~1815)의 능이다. 융릉 곁에 있는 건릉은 장조의 아들 조선 22대 왕 정조 (1752~1800, 재위 1776~1800)와 효의 왕후 김씨의 능이다. 1789년 정조가 아버지의 무덤을 이곳으로 옮겨 왔으며, 정조 자신도 이곳에 무덤을 만들고자 했던 뜻을 밝혀 1800년 정조의 건릉을 이곳에 만들면서 융릉과 건릉이 나란이 있게 되었다.	나래이션

자문

김준혁 박사 | 리더라면 정조처럼 저자(문학박사)
한동민 박사 | 수원화성박물관 관장(문학박사)
이기봉 박사 |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관 (고지도와 지명연구 전문가 : 역사지리학)
김세영 학예연구사 | 수원화성박물관

자료 출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국가유산청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 저자 : 한영우
수원화성박물관
규장각 자료실
고지도 :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万分一地形圖)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작

재단법인 정조인문예술재단

프로듀싱

DESIGN HOWFEEL
기획, 촬영, 편집 | 양재필 조훈희
나래이션 | 서승원

제작기간

2024년 5월~11월
자료화면을 제외한 기록된 현장 촬영본은 제작기간내에 촬영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정조인문예술재단
King Jeongjo Foundation for Humanities and Art